

사랑의 친구들, 실직여성가장 자활사업 지원금 전달식

총 3억원, 9개 기관 지원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총재 박영숙)이 벌이고 있는 실직여성 가장 창업시범 사업 2차 지원금이 지난 12월 17일 사랑의 친구들 회의실에서 9개 창업예정기관에 전달되었다.

실직 여성 가장들의 창업 모델이 되어 경험이 없는 실직 여성 가장들에게 도움을 주고 지속적으로 실직 여성 가장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창업 보육센터와 실습장 기능을 하며 실직 여성 가장의 고용 창출 효과를 꾀하기 위해 지난 9월 1차 지원에 이어 이번에 2차로 총 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원원금을 받은 기관은 한국여학사협회 강북 일하는 여성의 집, 한국수양부모협회, 여성가장모임-아낙들, 한국여성단체연합, 중앙부인회 성북 일하는 여성의 집, 온터두레회 부천 일하는 여성의 집, 서울 남서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경남 여성회이다.

이번 2차 창업지원사업은 모두 35개소에 공문을 보냈고, 이 중에서 신청서를 보내온 12개 기관 중 실사를 거쳐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한국여학사협회 강북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컴퓨터 튜터 창업보육센터' 사업으로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강북 일여집 컴퓨터 오퍼레이터 과정을 수료하고 기관 추천으로 컴퓨터 방문교사의 경험을 가진 여성가장 5인을 주축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는 '베이비시터 교육을 통한 가정 탁아 창업 시범사업'을 현재 실시하고 있



▲ 지난 12월 17일 사랑의 친구들 회의실에서 실직여성가장 자활사업 지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지원금을 받은 9개 기관 담당자와 박영숙 총재가 함께 했다.
▶ 여성가장모임 '아낙들'의 작업장 개소식.

다. 18명의 실습장을 개설해 이미 1차로 베이비시터 37명을 배출했으며 창업 2명, 시간제 탁아 5명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장 40명으로 서대문지역에서 발족한 '여성가장모임-아낙들'은 기술은 있지만 설비가 없어 가정집에서 빵을 구워 판매하고 있었는데 관할 동사무소에서 작업장으로 구 연희파출소를 1년간 임대해 주었다. 스타커뮤니케이션 이조안 사장이 대표로 있는 아낙들은 지난 12월 20일 작업장 오픈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실직여성 가장 창업시범사업으로 두부요리 전문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부인회 성북 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사랑의 바느질집'을 운영한다. 양장, 기계자수 교육을 받은



40여 명의 실직여성가장 취업훈련 수료생을 중심으로 의류수선 및 제작사업을 한다. 중앙부인회 회관의 유희공간을 이용하여 점포를 개설할 예정이다.

온터두레회 부천일하는 여성의 집에서는 제과제빵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을 취득한 실직자들을 고용, 공동작업장 형태로 '사랑으로 굽는 빵'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주야간으로 훈련이 없는 시간에 일여집에서 빵을 구워 판매하고 있는데 주요 판로는 어린이집이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가장과 함께 하는 사랑의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

성가장 실태조사, 수기발굴, 취업지원, 사업추진단 및 결연기업단 결성, 구인·구직자 만남의 장, 교육지원, 상담 등을 실시한다.

서울 남서 민우회는 '유기농산물 및 환경상품 전시 판매장'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민우회는 현재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녹색가게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번에 지원금을 받게 되었다.

경남여성회에서는 무료탁아사



업, 방과 후 이동교실, 무료상담 및 취업알선, 여성실직자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훈련 등을 실시할 '실직여성가장자활지원센터'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실직여성가장 자활사업 지원금의 재원은 지난 2월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바자회 수익금 8억원 중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이정원 사랑의 친구들 홍보부장은 밝혔다. 한편 1차에는 지원금이 일시불로 지급되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우선 70%만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사업결과에 따라서 나머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